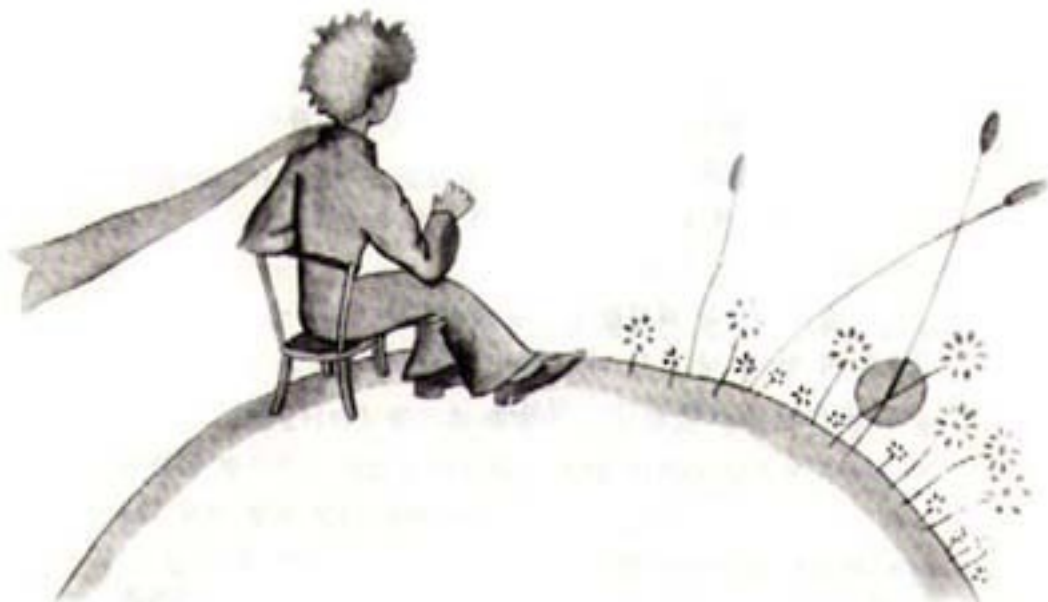


PERUSAL

2025 수능 대비

1. 문학의 시적 진실
2.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효율
3. 서양과 중국의 천체관 변화
4. 비타민 K의 역할
5. 고진의 풍경론
6. 헤겔의 변증법과 미학
7. 낭만적인 것으로의 철학적 사유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도입부를 더욱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입부에는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방향이 담겨있다. 이에는 대놓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글에 사용될 논리나 사례를 미리 말함으로써 글의 전체로 삼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렇기에 주어진 지문을 다 읽고 다시 도입부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느껴질 때가 많다. 이게 이러한 소리였고, 이를 미리 말해준 건데 내가 몰랐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지문을 다 읽고 도입부를 다시 읽을 때 드는 느낌을,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살려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지문의 모든 것을 압축한 내용으로 도입부가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국어 공부라 함은 독서에 있어서 도입부를 읽고 뒷내용을 어디까지 구축할 수 있는지, 설령 놓쳤다고 하더라도 뒷내용을 읽다가 도입부와 연결 지으며 표면적인 글보다, 맥락을 고려해 더욱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다.

독서 공부의 정의를 생각하며 공부를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히 그 지문 자체를 공부하고 있지, 국어라는 과목 자체를 공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 시국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국어 공부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 느끼고, 이를 앞으로 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어 공부의 방향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이 될 것이고, 이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평가원 지문과 평가원에 준하는 기관들이 작성한 글들을 함께 보며 설득해 보고자 한다.

질문은 환영한다. 글을 읽다보면 독자가 의문을 갖는 지점이 바로 필자가 독자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부분이 다른 글과 달리 필자가 독자에게 특별히 말하고 싶었던 차별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사실이나 논리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독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글로부터 얻는다면 해당 부분이 바로 필자가 너무나도 말하고 싶었던 주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곳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의문을 주변 맥락으로부터 해소해내는 능력**이 독서에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될 것이다. 실제로 수업 시간을 통해 강사가 직접 의문을 던져주면서 글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쉽게 되었던 경험을 다들 해보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의문을 스스로 던지지 못하기에 강사처럼 읽지 못했던 것인데, 대부분 의문을 직접 던질 시도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강사와 여러분의 차이가 올바른 곳에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지의 여부임을 알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싶다. 어차피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의문을 해소하는 능력은 이미 잘 키우고 있다. 수학과 과학에서 하듯 문제 상황에 대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푸는 것이기에 그게 공부의 일환임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국어 공부 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은 이 또한 국어 공부의 본질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알고 있음에도 실력을 기르지 못함은 이를 까먹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최소한 무엇이 가야 할 방향인지 몰라서 못하는 일은 이번 강의가 막아줄 것이란 얘기이다.

이제 실제 예시와 함께 살펴보자. 과연 어느 곳에 우리는 의문을 가짐으로써 필자와 소통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좋은 글인 걸까. 그걸 알게 된다면, 독서는 지루한 수험 생활의 한 줄기 놀이터가 될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글을 읽으며 표시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자. 본 표시들은 이 강의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될 것이기에 본인만의 표시가 아직 있지 않다면 이를 숙지하는 것이 강의를 들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수능 때 사용했고 지금도 애용하는 표시들을 모아냈다.

< > : 정의 e.g. <독서란 적절한 곳에서 의문을 가지며 필자와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도입부로 글의 내용을 암시하는 독서>는 ~ → 두 가지 경우 모두 독서의 정의다.

[] : 밑줄 치기 너무 긴 문장일 경우 사용한다.

밑줄 : 문제 풀 때 꼭 다시 보고 싶은 문장을 표시한다. 또는 독해 시 주의력을 환기해야 할 때 마찬가지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절대', '항상'처럼 고정불변한 부분에도 사용한다.

P : 문제 상황이 나타나면 여백에 표시한다. 문제 상황이 글에서 나타나면 반드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딱밥으로 사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S : P에 대한 해결책을 표시한다.

N : 어떤 주장에 대한 전제, 특정 현상에 대한 조건이 나타날 경우 표시한다. 이러한 전제나 조건은 글 전반을 지배하기에 놓치면 독해가 불가능하다.

L : 딱밥을 포괄적으로 표시한다. P나 N이 아니지만 글의 방향성을 예고할 경우 표시한다.

T : 목적이 드러나면 표시한다. T가 한 번 출몰하면, 그 뒤의 모든 내용은 T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T에 근거해서 뒷내용을 읽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표시들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이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려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표시는 나중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평소에 정의가 나타나면 <>를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면, 시험장에서도 표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오랜 시간 표시를 사용하다보면, 어느새부턴가 글을 잘 읽기 위해서 표시를 하던 처음의 목적이 열어지고, 표시를 위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문단끼리, 문장끼리의 거대한 연결성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매몰된 표시만을 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1문단에서 본 문장과 4문단에서 본 문장이 관련이 있으면, 다른 문단을 침범하더라도 과감하게 화살표로 연결하자. 우리는 예뻐 보이려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독해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글 전체를 아우르는 독해를 위해 이러한 표시를 활용하자.

[문학의 시적 진실] 2024 LEET

인문 지문을 풀 때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 지문의 첫 문단을 읽어보자.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지문에 따르면 '개연성'이란 무엇일까?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떠나서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껌 밝고 죽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원전사고에 비해 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문학이 역사보다 개연성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더 밀접한 지에 관한 내용이란 거다.

독서에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역사와 비교해서 문학이 갖는 우위를 포괄적으로 개연성이라고 말했었는데 이는 다른 단어로 옮겨간다.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paraphrasing이라고 부른다. 이를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이 강의에서는 '맥락'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맥락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다르게 표현된 같은 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개연성'은 이제 '시적 진실'로 옮겨갔다. 두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의미가 온전히 같게 사용된다.

2문단에서 실증주의 학자들에게 시적 진실은 위협받는다. 그 이유가 논리적,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적 진실 즉, 개연성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성의 측면에서 시적 진실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거꾸로 실증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개연성보다는 사실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문학보다는 역사의 편에 선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지문 초반에 문학과 역사라는 큰 두 축을 제시했고 이의 기준을 개연성과 사실성임을 말해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뒷내용을 읽더라도 이 큰 두 축을 기반으로 읽어야 한다. 이에 위의 설명들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특히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진실은 문학에서도 사실성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의미부여' 때문이다. 의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에 실제 사실과는 완전히 연관이 없다. 이에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말함으로써 비극적인 현실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포장된 이상이므로 언젠가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육사의 문학적 표현은 단순 주장 중 하나가 된다. 이에 시적 진실이 단순히 허구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육사의 표현을 모두 공감한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개연성' 때문인 것이다.

리처즈는 이를 알고 있었다.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언어의 '과학적 사용'에 가두고, 문학을 언어의 '정서적 사용'으로 빼돌려 반론을 피한다. 언어의 '정서적 사용'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의미와 다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지문에 나온 정의에 의하면, 수용자의 주관적인 정서와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를 말하며 paraphrasing에 따라 '의사 진술'이라는 단어로 옮겨간다.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였기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뒷내용에 구체적인 진술들이 추가될 것이기에 필자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이를 우리는 떡밥 처리라고 부를 것이다. 합리적인 추론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비약적인 도약이 일어났을 때, 이는 뒷내용을 예고하는 떡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고 기다리면 뒤에서 보강한다는 것까지 믿어야 한다. 그래야 떡밥이 회수되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떡밥이 떡밥인지 모르다면, 떡밥이 회수되어도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떡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낼까? 비약적으로 도약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채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험을 이제 국어 공부로 쌓아야 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자로부터 시적 진실을 도피시킨 리처즈, 이를 지문의 4문단에서는 주관적 효과의 문제로 환원했다고 말한다. 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문학 언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완전히 딱밥이다. 앞에서는 리처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나온 적이 없다. 단순히 ‘나누었다’라는 결과만이 나온다. 3문단을 읽으면서 결과의 이유가 왜 안 나왔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4문단의 ‘문학 언어의 특수성’이라는 어구를 보고 드디어 딱밥이 회수되구나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4문단의 모든 내용은 ‘문학 언어의 특수성’이 어떻게 시적 진실의 진실성을 논리, 사실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효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버린다. 그 문단의 존재 의의를 독자가 알게 되는 것이다! 목적이 생긴 독해는 방향이 잡힌다.

시적 진실에 대한 알리바이는 논리, 사실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적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거다. 즉, 문학 언어의 특수성과 paraphrasing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서양의 예시를 사례로 가져온다. 시적 허용이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을 넘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은 문학이 현실에 갇혀야 함을 뒤집는 반증이다. 논리, 사실적이어서 할 이유가 없는 문학을 논리, 사실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한 실증주의자들로부터 시적 진실을 보호한 것이다. 이를 ‘알리바이’라고 표현하니 필자가 얼마나 고민하며 이 글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렇게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위해 글을 썼음을 공감해야 한다. 왜 이 표현이 이 사람의 최선이었을까. 평가원의 지문들은 충분히 좋은 글들이다. 그렇기에 필자의 단어 표현들이 최선이었음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학생들이 할 일은 그 최선이 어쩌서 최선이었는지를 느끼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좋은 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국어 공부가 될 것이다.

신비평 이론가들은 시적 허용과는 다른 알리바이를 또 제시한다. 바로 역설이다. 역설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 논리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삶의 단면을 잘 표현하는 역설, 과연 역설과 논리 중 무엇이 사람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 생각해보면 역설로 저울이 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역설은 변증법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변증법이란 정에 해당하는 개념이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반 개념을 만나 조화를 이뤄 수렴하게 되면, 합에 해당하는 훨씬 높은 단계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수소와 산소 분자가 적절히 만나면 전혀 다른 물질인 물이 만들어지는 과학 현상도 가히 변증법적이다. 역설은 완벽히 정, 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매우 역설적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올림픽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이 퇴색되지 않았을까. 올림픽이 있었기에 4년의 시간동안 너무나도 아팠지만, 메달의 여하와 상관없이 올림픽의 존재만으로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삶을 이룬다. 아프다는 정 개념과 청춘이라는 반 개념은 완전히 반대되는 듯 하지만, 합에 해당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아플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청춘이 단순 20대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지점임을 말하는 진리를 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설은 논리를 넘어서는 ‘진실성’을 갖게 된다. 이를 신비평 이론가들이 말한 것이다.

지문에 나온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도 ‘사뿐히 즈려밟는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사뿐한데, 즈려밟겠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말이 된다. 화자는 상대에게 자신이 싫어지면 자신이 뿌린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한다. 이 꽃은 화자와 상대가 사랑한 모든 순간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를 사뿐하게 밟으라는 것은 자신과의 모든 기억을 버리면서까지 이별을 선택하는 당신은 훌가분한가요 질문을 던지는 듯 들린다. 그러나 상대가 훌가분하기에는, 사랑을 저버린 이별이 갖는 무게가 상당하다. 각자의 세계가 서로 만나 교집합을 이룬 것이 둘의 만남이었는데, 이별은 이렇게 새로 탄생한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 참으로 사뿐히 즈려밟으라는 말은 헤어지자는 말이 갖는 무게를 새삼 잘 표현한다. 헤어지고 단순히 사진첩의 사진을 지우는 것이 사진 삭제의 의미가 아니지 않는가. 그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김소월은 문학으로 말했다.

이러한 비논리가 모두 문학인 것은 아니다. 역설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적절히 변증법이 쓰이지 못한 역설은 가치가 없다. 노력 없는 성공 같은 말은 마치 역설처럼 보인다. 허나 노력과 성공이라는 가치보다 고차원적인 합의 개념으로서 ‘노력 없는 성공’이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은 논리적인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진실 즉, 시적 진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 어떤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증명을 문학에서는 사실과 논리가 아닌, 표현으로 하는 것이다. 그 문학적 맥락은 지문에서 ‘일관성’과 ‘설득력’이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우리가 할 문학 공부는 이러한 일관성과 설득력을 어떻게 알아채는 가이다. 즉, 독서에서는 떡밥과 맥락에 대한 알아챌, 문학에서는 일관성과 설득력에 대한 알아챌이 국어 공부의 본질이 되겠다. 결국 독서와 문학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국어를 포함한 언어에 대한 공부는 모두 ‘개연성’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시적 진실에 대한 고전적 관점 즉, 실증주의자로부터 공격받기 전부터 존재한 문학의 인간적인 가치는 보편성으로 입증된다. 사람들이 결국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명작이 존재한다는 것, 그 명작은 삶을 사실은 아니더라도 매우 인간적으로 잘 묘사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를 이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좋은 작품들은 최소한 작품이 제시하는 허구적인 세계의 내적 정합성이라는 맥락 아래 승인되는 맥락적 진실을 획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 속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닌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 허구의 세계에 담긴 개연성 즉, 이치가 실제 세계와 얼마나 일치해서 실제 세계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공감할 수 있는지가 보장이 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를 재현하는 완성도로써의 개연성이 문학 작품의 가치다.’

저 말을 지문 없이 보았다면 지금 우리가 독해하면서 얻어간 모든 내용들을 바로 알아챌 수 있을까? 하지만 거꾸로, 지문을 읽고 이 한 문장을 보면 우리가 독해하면서 말한 모든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요약이란 이렇게 단방향적이다. 지문의 첫 문단을 포함한 도입부에서는 항상 이런 요약이 제시된다.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숨어 있었다. ‘문학이 역사보다 더 보편적인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시적 진실’. 지문을 완독하고 읽어보니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와 무게감의 차이가 큰가?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독서 공부다. 도입부만으로 얼마나 추론할 수 있는가. 그 시야를 길러야 한다.

문제를 확인해보자.

16번

이 지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문학은 허구이기에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반박한다.

유럽의 근대 초기 소설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실화나 역사라고 주장했다.

리처즈는 주관적 효과가 진실 판단의 기준이므로 사실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를 가진다 했다.

신비평 이론가들은 문학은 비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일관성과 설득력으로 진실에 가깝다고 했다.

이를 잘못 연결한 선지는 ㉓입니다. 사실적 요소를 강조한 사람은 이 지문에서 아무도 없다. 왜냐 하면 문학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었다. 진실성은 사실성이 아닌 본질에 대한 표현으로 극복한 게 문학인데 이를 사실적 요소를 강조하여 시적 진실을 주장한다면 실증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아주 反주제적 선지였다.

17번

㉑ 자격지심 : 사실이 진실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통념

㉒ 헛소리 : 실증주의에서는 비 사실(거짓 or 허구)은 진실이 될 수 없다는 표현

㉓ 알리바이 : 사실이 아닌 주관적 효과가 문학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사실을 배제한다는 뜻

㉔ 면책특권 : ㉑과 거의 유사함, 문학에서는 미적 효과를 포함한 주관적 효과가 사실보다 우선적임

㉕ 교집합 : 허구적인 재현이라도 실제 세계와 같은 개연성을 가지는 작품들

㉔는 허구인 문학적 표현을 거짓(반증할 수 있는 사례)이라 말하고 있다. 문학에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거짓은 개연성을 해치기에 문학에서도 진실성을 해친다. 따라서 굉장히 反주제적 선지였다.

18번

<보기> 독해를 우선 하자. 두 사람이 실제로 부자 관계였기에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과 아들을 모르는 아버지가 서로 공감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장돌뱅이(보부상)로서 떠도는 허 생원의 삶은 직업처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를 사실 제시가 아니라 메밀꽃 핀 달밤의 장면으로 이 문학 작품은 삶의 가치를 주장한다. 비록 떠돌이 삶이지만 떠돌았기에 만날 수 있었던 부자, 이들의 상봉은 이들 삶에 가치를 오히려 부여한다. 이들에게 떠도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정말 삶 그 자체였다. 스산한 삶을 감각적인 풍경과 연결지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독자들을 설득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인간적 삶을 읽는 이들이 공감하도록 치밀한 구성을 짜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그렸고, 읽는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어도 개연성 덕분에 공감한다.. 우리는 이런 작품을 문학에서 '명작'이라 부른다.

시의 언어는 의사 진술이었다. 우리의 충동이나 태도를 담은 말로, 효과에 의해 자신이 입증되는 진술을 뜻한다. 따라서 문학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옳은 의사 진술은 내적 세계의 정합성이 보여주는 '개연성'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문학의 시적 진실을 보장하니까 말이다.

㉑의 놀라움은 반전으로 인한 '의외성'이다. 독자의 예측 범위를 넘었기에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다. 그러나 그것이 시적 진실과 무슨 상관인가? 개연성을 보여주었나? 의사 진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는 안 되는 선지이다. 의사 진술은 문학의 진실성과 맥락적으로 동의어였음을 우린 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효율] 2018 수능

이제 우리가 확인해볼 것은 독서의 도입부로부터 뒷 지문의 몇 %까지 알아낼 수 있느냐 즉, '지문 장악력을 어떻게 기르냐'이다. 연도와 월이 표시된 것은 기출 지문이니 참고 바란다.

마치 지문을 다 읽고 도입부로 돌아온 것처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입부에 있는 말들이 전체 내용의 요약이란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가 엄청나는 거다. 압축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그 단어가 이 지문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의미에 대해 계속 고민해보아야 한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이 지문의 화제인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과 목적이 나온다. 특정 기술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 필요한 상황 즉, 기술의 본질 그 자체이다. 문제 상황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부호화 과정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부호화 과정의 목적은 그럼 또 무엇일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뒤에서 이제 부호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전부 신속, 정확, 전달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세 개의 축이 제시 되었으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각각 구별해야 한다.

뒤의 내용은 이제 배경지식 보강이다.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보량은 무엇이고 엔트로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이는 뒷내용을 읽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이기에 앞에서 미리 설명하는 게 다. 따라서 쉬이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확률과 정보량이 반비례함이 제시됐다. 이런 건 표시하는 걸까, 외우는 걸까? 당연히 둘다 아니다. 이해하는 거다. 확률과 정보량이 모두 들어있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떠올려 연관 지어야 한다. 맨날 짜장면만 먹는 사람의 오늘 점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정보량이 많을까? 당연히 적을 거다. 그 사건의 확률이 높으므로 정보량은 오히려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상황의 연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해력이 증진된다. 10을 5와 5로 나누는 것과 1과 9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보라. 각각을 곱하면 25, 9이므로 전자가 훨씬 크다. 그래서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가 확률이 동일할 때 최대를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이 나왔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송신기가 2문단에 나오는 걸로 보아, 채널, 수신기 순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문장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주기에 중요하다. 또한, 송신기에서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우선 송신기에서 부호화 과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다른 데서도 발생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다른 데는 해당 안 되고 송신기에서만 부호화가 발생한다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모든 선지에서 '부호화'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송신기와 연관지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Categorization이다. 결국 여러 영역을 혼합해 선지를 구성하는 것이 오답 선지를 만드는 최빈 방법이다. 따라서, 이런 분류에 대한 글로부터 미리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시켜야 독해 시간도 줄이고, 문해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소스 부호화 :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

부호화 과정의 세 축 기억하자. 신속, 정확, 전달. 소스 부호화는 이 중 무엇에 해당할까. 아무래도 신속이지 않을까 추론해야 한다. 용어가 새로 제시될 때 그 역할과 용어를 연관지어보자. 데이터를 압축한다. 소스(원형) 데이터를 압축한다. 왜? 신속하게 하려고. 용량 큰 파일을 그냥 보낼 때보다 압축해서 보내면 빠르다는 건 경험적으로 다들 알 거다. 이게 맥락이다. 그렇다면 채널 부호화와 선 부호화는 각각 정확, 전달을 담당하는 게 아닐까. 이 정도 영역까지 추론해야 한다.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 수신기에서 소스 부호화 복원할 때 필요한 조건 :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 \geq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rightarrow 엔트로피 자체가 최솟값이므로 당연히 위의 부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정의만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별 정보로 처리해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진다. 부등식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엔트로피 부호화는 최대한 등호에 가까워지려 한다. 그 중 허프만 부호화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를 적게 부여하고 vice versa이다. 최솟값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럼 이해가 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짧게, 가끔 일어나는 일을 길게 해야 총 비트 수가 줄지 않을까. 맨날 쓰는 암호를 간단하게 하고, 아주 가끔 쓸 것을 길게 해야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당연한 생각을 독해 시에는 자꾸 안 하게 된다. 그렇게 식물적으로 반응만 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지양해야 한다. 반드시 풀 집중 상태로 능동적 반응을 해야 한다. 국어는 아무리 시간 들여도 그렇게 안 하면 늘지 않는 잔인한 과목이다.

채널 부호화 :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

신속, 정확, 전달 중 정확에 대응한다. 예측이 역시 맞았고 선 부호화는 아마 전달에 대응됨이 거의 확정되었다. 잡음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한다. 1을 보낼 때도 111로 보낸다면 혹여 오류가 나서 1 중 일부가 0이 되어도 1로 읽을 수 있다.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확률을 e 라 하자. 기존의 오류 확률은 e 이다. 111이 잘못된 정보로 변형되려면, 000, 100, 010, 001이 되어야 하며 총 오류 확률을 더하면, $e^3 + 3e^2(1-e)$ 이다. e 는 1보다 작으므로 삼중 반복 부호화에 의해 $\{e^2 + 3e(1-e)\}$ 배 감소한다. 실제 1개의 기호를 3개로 불리니, 부호율은 0.33이다.

지금 한 것은 지문의 내용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붙여 독해한 것을 글로 옮겼다.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긴커녕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문이 받아들여진다. 지문을 당연한 내용들의 집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이해이다.

선 부호화 :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하며 이때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

차동 부호화는 0은 전압 유지, 1은 전압 변화라고 한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전달되기 위한 물리적 과정이었다. 신속, 정확, 전달 중 전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읽으니 우린 알 수 있다. 결국 부호화는 온전히 송신기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특징이었다. 채널은 전달의 통로였고, 수신기는 부호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제 다시 1문단을 보자.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된다', 참 완벽한 요약이다.

[서양과 중국의 천체관 변화] 2019 수능

19 수능은 역대급으로 꼽히는 불국어 해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답률이 낮은 킬러 문항을 보유하고 있는 지문이다. 하지만 당시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화작, 문법이 어려워 시간 관리가 훼손되었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지문을 읽어보면 앞선 지문들보다 간단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태양 중심설 → 경험주의 확산, 수리 과학의 발전 → 형이상학 뒤바꾸는 변혁 : 서양의 우주론
서양의 우주론 전파 →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이으려는 시도 → 지적 유산 관심 제고 : 중국
크게 두 개의 축이 보인다. 서양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방향성은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다. 여기에 나오는 추상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 무슨 경험주의, 무슨 수리 과학의 발전, 무슨 형이상학인지 나왔는가? 무슨 회통의 시도, 무슨 지적 유산인지가 나왔는가. 이 모든 게 바로 떡밥이다. 이런 미지의 것들 투성인데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건 1 문단에서 알려준 방향성을 이제 구체화하여 설명하겠다는 예고이다. 우리는 도입부를 통해 마치 예언을 들을 것과 같아야 한다. 그 예언을 따라서 읽어 나가자. 그것이 지문 장악력이니 말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수학적 전통에 따라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하려 한다. 이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였으나 그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제기하겠군. 왜냐,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의 단초가 태양 중심설이라는 예언을 이미 우리가 듣고 왔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과학이 더 발전되면 또 다른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까. 예언대로라면 말이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지구 중심설은 단순히 천체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상계와 천상계, 신과 형상이 같은 인간의 지위라는 형이상학 당시 문화 전체와 연관이 있었다. 이를 수학이라는 논리로 바꾸겠다는 코페르니쿠스의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브라헤는 조금 더 눈치를 보았다. 어떻게든 지구 중심으로 천체를 그나마 수학에 맞게 배열한 것인데, 수학의 정통대로라면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옳은 이론으로 간주된다고 앞에서 나왔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브라헤의 이론은 코페르니쿠스의 것을 이길 수 없다. 즉, 수리과학의 발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예언을 중심으로 한 줄기의 끝가지에 불과하다. 반면 케플러는 신플라톤주의에 따라 단순성을 추구하고,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관측치를 이용해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낸다. 이쯤 되니 상당한 수학적 결함이 발견된 지구 중심설은 형이상학이고 뭐고 간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대상이 되며 이제야 태양 중심설이 자리를 잡게 된다.

한 술 더 떠서 뉴턴도 참전한다.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다른 공식으로 증명해 사실임을 입증한다. 갑자기 물리학을 모르면 어려운 단어들 쏟아져 나온다. 예언에 나온 말들인가? 아니다. 끝가지다. 문제를 위한 글귀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끝가지는 그냥 넘어가도 다시 돌

아와서 비교만 해도 문제 푸는 데이 지장이 없다. 그러지 못하는 건 중심 가지다. 넘어가는 순간 뒤의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불가해지는 중심 가지가 아니라면 과감히 넘겼다가 다시 와도 된다. 과학에 관한 내용에서 비례가 나오면 공식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만유인력의 크기가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한다. 이를 공식으로 써보자.

만유인력 $F = G \times \frac{m_1 m_2}{r^2}$: 비례만 제시되어 상수인 G 를 곱해서 등식으로 만들었다. 참고로 이는

실제 만유인력 공식이다.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쉽지는 않은가. 한 천체가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해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말이 어려우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과학 지문

이므로 이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 = \sum_{k=1}^n F_k$ (F_n 은 n 번째 부피요소의 만유인력)

통짜를 못 구하겠으면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다. 말이 쉬워졌다. 이런 과정들에서 힘을 빼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가 있다. 결국 뉴턴의 만유인력 증명은 이 모든 짓을 해서 무얼 증명했는가? 그 결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결론은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이다. 태양이랑 지구가 당기는 힘이 같다니, 뭔가 태양이 더 크니까 세계 당길 것 같은 생각을 뒤엎어 태양중심설을 뒷받침한 거다. 이렇게 중심 가지로 돌아오는 탄력이 좋아야 한다.

이제 중국이다. 중국의 역법과 서양 천문학을 섞은 시헌력이 정부 공인이 되며 시작된다. 그러나 중국 지식인 특, 중국의 지적 유산을 베이스로 서양의 것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예언대로 이들은 자기들 것으로 서양의 천문학을 연결할거고 자신들의 지적 유산에 관심을 갖게 될 거다. 마치 피자가 맛있어서 고대 문헌에서 피자 비스듬한 걸 만들었다는 기록을 찾아 알고보니 피자는 이탈리아 거가 아니라 중국 거였다고 했던 일처럼 말이다.

옹명우와 방이지는 기존 자신들의 고대 문헌의 우주론은 비판했다. 원래의 자신의 것들과는 연결이 불가했다고 생각해 독창적인 새 이론인 광학이론을 제시하여 서양의 천문학을 중국의 유산과 연결한다. 허나 왕석천과 매문정은 원래 고전에 있었던 것이라며 중국 기원론을 내세운다. 둘이 어떤 차이인지 기준 하나만 잡아도 분류가 잘 된다. 독자적인가, 독재적인가.

그렇게 매문정의 말이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어 옛 문헌을 모두 정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왜냐하면 옛 것에 이미 답이 있을 거라는 기원론을 따르니 말이다. 역시 도입부의 예언대로 자신들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능 전날 어떤 내용이 지문으로 나올지 말해줘도 대부분의 수험생은 국어 100점을 받지 못한다. 그 증거가 도입부에 이미 다 나와있는데도 실제로 학생들은 못 맞춘다는 점이다. 그러니 예언을 얼마나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토해야 한다. 바로 그 지문 장악력이 독서 실력과 직결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7번

읽기 계획 보이는가? 평가원의 출제의도에 도입부의 예언을 받들라고 대놓고 나와 있다.

②은 예측과 같았다. 옹명우, 방이지, 왕석천, 매문정의 이론이 있으니 말이다.

28번

경험하면 브라헤 아니었는가. 브라헤 덕에 케플러가 나왔고, 중국에서는 광학 이론이 나왔었다.

㉔은 브라헤라는 걸가지 저격 선지이다. 브라헤 ~ 경험으로 paraphrasing 못했다면 찾기 어렵다.

29번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은 도입부로 요약된다. 도입부와 부합하는 걸 찾자.

㉑ : 항성 천구(태양)이 고정된 건 태양중심설이다. (X)

㉒ : 적게 써야 수학의 단순성을 충족한다. (X)

㉓ : 형이상학의 변혁이라고 도입부에 딱하니 있다. (X)

㉔ : 형이상학의 변혁을 잘 서술한 선지다. (O)

㉕ : 신플라톤주의와 경험주의적 근거는 각각의 것이다. '-에서'가 틀렸다. (X)

쉬운 문제였다.

30번

㉑ - 서양의 우주론

성리학적 이론은 중국의 기존 이론이다. 그걸 긍정했다고 하니 옹명우와 방이지가 아니라 왕석천과 매문정 쪽을 얘기한다. 그들은 중국 기원론을 따르니 답이 나왔다. 광학 이론 vs 중국 기원론을 물어 본 문항인 것이다. 지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대립 구도가 결국 문제로 나왔고 정답은 ㉕이다.

31번

험악한 <보기>에 무서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지문에서 이미 공식을 획득했고 결론을 안다. 결국 뭘 짓을 해도 태양과 지구는 당기는 힘이 서로 같다는 결론 말이다.

㉒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어차피 질량이 m 인 질점은 읽을 필요 없다. 만유인력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같으니 질량이 m 인 질점을 선지에서 제거하면 다음처럼 읽힌다. '지구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과 같다. 공식을 쓰면 더욱 간단하다. 지구 질량을 E , 태양 질량을 S 라 하자. 그럼 선지가 다음처럼 된다.

$G \cdot \frac{mE}{r^2} = G \cdot \frac{mS}{r^2}$ (r 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rightarrow E \neq S$ 이므로 틀렸다.

공식을 반드시 지문으로부터 만들어내고, 과정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결론은 꼭 챙겨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제였다. 수능 전까지 반드시 터득해야 할 능력 중 하나이니 기억하자.

[비타민 K의 역할] 2023 6월

과학 지문은 아무래도 필요한 배경지식을 도입부에서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입부 독해 시에 떡밥과 배경 지식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혈액 : 세포에 필요한 물질 공급 & 노폐물 제거

P : 혈관 벽 손상 → S :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함

혈액 응고 : 혈병이라는 덩어리 (피브린이 모인 섬유소 그물 + 혈소판 마개)

혈관 벽의 손상을 막으려는 해결책이 혈병인데,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면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용어도 다르다. 이물질이 쌓여 혈관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당연히 이물질에 혈전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혈전은 만들어지면 나쁜 거란 걸 알아야 했다. 여기까지는 배경지식 + 혈전은 나쁜 것이라는 거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은가. 떡밥이 등장했다.

비타민 K의 역할 : 혈액의 응고 & 원활한 순환

→ 아주 큰 두 개의 축이 등장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축에 따라 독해를 해야 한다. 과연 어떻게 혈액 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질까. 어떻게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걸까. 아마도 혈전이 생성되지 않고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 이제 읽어보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이면 혈액 응고가 안 된다. 그래서 지방에 무언가 혈액 응고를 돕는 물질이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그 물질이 비타민 K란다. 혈액 응고의 어떤 단계에 영향을 줄까.

혈액응고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연쇄 반응이라고 하니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하자.

1.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
2. 트롬빈에 의해 피브리노겐이 응고되어 피브린으로 바뀜 → 섬유소 그물 형성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포함한 혈액 응고 인자가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한다.

비타민 K의 첫 번째 역할의 실마리가 풀렸다. 비타민 K가 없으면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혈액 응고는 시작도 못할 것이다. 활성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 혈액 응고 인자 즉, 단백질이 카르복실화 되어야 칼슘 이온과 결합해 활성화된다. 비타민 K의 역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 →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 단백질의 카르복실화에 중요한 역할'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개별 정보로 처리하는 순간 지문에 잡아먹혀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타민 K를 두 개로 나누고 있다 K_1 은 식물, K_2 는 동물로 생성된다. 비타민 K_1 이 있으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하니 혈액 응고는 K_1 과 상관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K_2 는 아직 나오지 않은 '원활한 순환'과 연관 있는 것 아닐까?

또 다른 중요한 기능 = 원활한 순환으로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비타민 K에 의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해 덩어리가 진다. 이런 칼슘염은 결국 혈액에게는 이물질이기에 혈전처럼 과다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막으려면 MGP가 필요한데 MGP는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한다. 여기서도 점차 구체화되었다. '원활한 순환 → MGP의 활성화'로 말이다. K_2 는 간세포 외에서 작용하므로 MGP가 있는 근육세포는 K_2 와 연관 있음이 확정되었다. 이를 마지막에 대놓고 말해주니 비교적 친절한 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번

① : 혈전이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혈병과 혈전을 헛갈린 사람은 바로 정답이 보이지 않았을 거다. 도입부에서 꽤나 길게 설명하고 있었기에 혈전에 대한 이해를 체크하는 문항이었다.

11번

칼슘의 역설이라고 하니 어떤 게 역설인지 생각해보자. 뼈가 좋아지려고 칼슘을 먹었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역설이지 않을까. 따라서 선지에는 칼슘 보충제의 목적과 실제 결과가 모두 제시되어 둘이 모순됨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와 가장 적합한 선지는 ②이다.

12번

비타민 K_1 과 K_2 의 공통점 : 카르복실화를 통해 표적 단백질 활성화

비타민 K_1 과 K_2 의 차이점 : 각각 간세포와 지방세포에서 표적 단백질에게 작용, from 식물/동물
∴ ④은 공통점을 적절하게 말하고 있다.

지문의 두 가지 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다.

13번

(가) : 어차피 비타민 K가 방해되면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지 않아 혈병도 혈전도 형성 X

(나) : 비타민 K로 인해 형성된 트롬빈의 도움으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데 방해됨

(다) :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지 못함

순서 상 (가)는 원천인 비타민 K 차단, (다)는 비타민 K가 작용했으나 트롬빈이 일을 못해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 X, (나)에서는 피브린이 만들어져도 방해

① : 비타민 K가 차단되어 MGP가 일을 못해 허관 석회화가 유발 (O)

② : 피브린이 형성되긴 했으니 혈전이 만들어졌을 것. 이를 분해하므로 혈전 분해 맞음 (O)

③ : 선지대로라면 혈액 응고 인자가 불활성화된 것이므로 사실상 (가)와 연결 (X)

④ : 피브리노겐의 전환을 억제하려면 트롬빈 불활성화 ∴ (가), (다) (O)

⑤ : 세 가지 약 모두 피브린이 제 역할을 못하므로 섬유소 그물 형성은 억제됨 (O)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없다. 그저 많다고 느낄 뿐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Categorize해야 정보가 쉬이 정리된다. 이 지문에서는 도입부의 예언이 점차 구체화되던 걸 기억해야 한다. 떡밥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엿볼 수 있었다.

[고진의 풍경론] 2021 LEET

두 문단이 도입부에 대응한다. 도입부가 항상 한 문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브루넬레스키의 선원근법 : 기하학적 투시도법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됨
고진의 풍경론은 이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결론이 나온다. 역시나 추상적이다. 선원근법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나오지 않았고, 어떤 특정 문학 사조인지,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1문단 마지막 문장은 완벽한 떡밥 문장이며 우리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독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말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 노력하자.

고진의 풍경 : 풍경은 실재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점에 따른 발견이다.

이를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연결 짓는단다. 어떤 연결일까. 이 또한 떡밥 문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니키다 뚝포의 소설 속 주인공이 나온다. 이 주인공은 실제로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투사한다. 마치 우리가 특정 장소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풍경'으로 전환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이른 '전도된 시선'으로 옮긴다. 왜 '전도'일까? 외부가 아닌 내부를 보아야만 풍경을 만들 수 있다. 풍경은 외부에 있다는 통념을 깨고, 주관의 투사를 위해서는 오히려 내면이 더욱 풍경의 조건에서 중요하다는 거다. 이를 '내적 인간'의 '전도된 시선'이라고 한단다. 고진의 풍경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다음 문단은 시작부터 강렬하다. 고진의 풍경론이 어떤 문단의 세태를 비판하는지가 나온다. 이는 도입부의 떡밥을 회수하는 문장이다. 현재 문단은 내면(자아), 외면(사실) 중 하나만을 내세워 대립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려 풍경론이 제시되었다.

P : 내면과 외면 중 하나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S : 둘다 중요하다 아닐까? 어떻게 풍경론이 이를 뒷받침하는 걸까. 이미 읽었던 것들에 충분히 답이 있다. 풍경은 외면인 장소를 내면인 주관과 결합시켜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내적 인간도 외부의 대상이 없으면 자신이 투사할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다. 즉, 내면과 외면이 모두 풍경에 필요함을 이제 지문에서는 말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해결책을 떠올리는 것은 독해에 있어서 훌륭한 예측 방법이 된다.

글이 역시 예상대로 흘러간다.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은 풍경이 곧 현실 자체라고 생각한다. 풍경의 안에 놓여 있다는 말은 주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과 paraphrasing된다. 풍경은 객관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생성된 모사이며 이를 리얼리즘으로 부르겠단다. 결국 리얼리스트는 모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에 필요하며, 이때 주관은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관대로 개성 있어야 한다. 따라서 리얼리스트는 내적 인간으로서 외부 세계를 자신의 마음대로 맘껏 재단해야 한다.

나쓰메 소세키는 작가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자각한 사람이다. 자신이 보는 세상이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재구성된 풍경임을 알아챈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관에 의해 고정된 시점이 생기면 마치 브루넬레스키의 그림처럼 기하학적으로 배열되는 세계가 객관인 척 하기 시작한다. 이를 탈출하려면 자신의 내면에 의해 결정된 고정된 시점에 회의를 가져야 하며 이를 '풍경 속 불안'이라는 단어로 네이밍한다. 동양화는 선원근법과 달리 일정하게 고정된 시점이 없다. 이는 마치 재구성이라는 주관의 개입이 없는 것 같다. 허나 소나무 그림을 그리는 순간 현실 세계가 작가의 머릿속을 통해 관념으로 가공되어 그리므로 나타낸다. 머리를 통할 수밖에 없기에 동양화도 그림인 이상 주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고정된 관점

에 회의를 가져도 그 회의마저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회의도 내 내면이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회의일지라도 풍경 속의 불안을 추구함으로써 전도된 시선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벽한 외면은 없이 내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외면이 없다면 투사할 대상이 없는 내면은 의미를 잃는다. 외면과 내면의 이러한 교류를 모르고, 막연히 둘 중 하나만을 추구하면 전도된 시선에 빠져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갇힌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문학임을 생각할 때 마땅히 문학은 주관에 갇히지 않도록 풍경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에 고진은 문단의 세태를 비판했던 것이라 말하며 글이 마무리 된다.

결국 도입부의 예언을 벗어나지 못한다. 둘 중 하나만을 추구하는 문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둘의 공존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도된 시선에 대한 견제(풍경 속 불안)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모두 챙겨야 하는 문학’

4번

단순 사실일치 불일치 문제이다. ㉔의 주인공은 공적, 사적을 떠나 외부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 주인공이 몰두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었다. ‘내적 인간’이니까 말이다.

5번

‘전도된 시선’ : 내적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주관에 잡아먹혀 풍경을 재구성하는 관점 → ㉔

6번

이상의 <날개>에는 자폐적인 사람이 나오며 ‘객관적인 카메라’로 내면까지 들춰낸다. 그러나 객관적인 카메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고진의 관점에 따르면 풍경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카메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풍경 속에 있음을 모르는 것이므로 풍경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다. 마치 사실인 줄 착각하고 모사한 이상의 소설은 결국 리얼리즘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최재서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진과 동류라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관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주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은 없기에 주관에 따라 모사가 달라짐을 말한 것이고, 확정된 관점이나 범주가 없다는 것도 역시 주관의 지배를 뜻한다. ‘최재서 = 고진’이다.

① : 서양 풍경화는 고정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점의 이동과는 배치된다. (X)

② : 풍경 속 불안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주관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X)

③ : 결국 객관적인 카메라 역시 전도된 시선이었다. 객관이라 착각하며 모사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리얼리즘에 속하며 이는 고진의 의견과도 동일하다. (O)

④ : 지극히 객관적인 카메라를 내면에 들이댄다고 주장함은 고진에게는 허상이며 풍경에 잡아먹힌 주관의 재현이다. 역시나 전도된 시선이므로 객관의 재현은 없다. (X)

⑤ : 내적 인간의 정의 자체가 전도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발견하는 이이다. 내적 인간이 풍경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적 인간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풍경 안에 자신이 서 있다는 점이다. (X)

결국 복잡해보여도 ‘P : 전도된 시선 ~ 리얼리즘 ~ 풍경 안에 서 있음’, ‘S : 풍경 속 불안을 가지기’의 대립만 잡으면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문해도 마찬가지로 대립 구도를 배워가자.

[헤겔의 변증법과 미학] 2022 수능

앞서 간략히 다루었던 변증법이다. 변증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소재가 나오면 반드시 세 가지 정, 반, 합을 각각 찾아 대응시켜야 한다. 그 대응 간의 단순히 (정+반)의 sum과 발전을 이룬 합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내면, 그게 이 변증법이 말하고 싶은 질적 고양이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변증법의 정과 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이 된다고 한다. 이를 이제 앞으로는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여섯 글자로 줄여 말할 거다. 지문에서 이렇게 좋은 제시어를 주면 독해에서 요약 대신 잘 활용해야 한다. 이 단어의 참 뜻 자체가 변증법의 정의가 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paraphrasing되고 있음을 눈치 챌어야 했다.

이제 이 지문에서 변증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간략히 나온다. 변증법이 논증의 방식에 그치지 않고 논증하려는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즉, 이라고 하면서 다음 문장이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대응시킬 수 있다. 아래처럼 말이다.

논증의 방식 ~ 이념의 내적구조 ,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 이념이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

따라서 논증이라는 것은 근원적 질서 자체인 이념을 검증하는 것이고,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앞서 검증한 이념이 관념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현실에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란다. 또한, 이 두 가지는 모두 변증법으로 설명된다고 하니 우리는 이념과 이념이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 각각에 대해 정, 반, 합을 찾아야 하는 거다. 두 차원으로 대표되니 각각을 구분해서 읽어보자.

미학을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룬다고 하니 정, 반, 합을 찾고 정의를 챙기자.

절대정신 :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 > 예술, 종교, 철학

이때 각 영역에 상관없이 절대적 진리인 이념은 동일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예술 - 직관, 종교 - 표상, 철학 - 사유로 각각 대응되며,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이 사유에서 종합된다는 말로부터 외면성(正), 내면성(反), 사유(合)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술의 객관성(正), 종교의 주관성(反)이 합쳐져 철학(合)을 이룬다. 숨은 정과 반의 수렴으로 형성된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이념이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에 사유하는 철학이 가장 이념에 대해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가)는 예술 > 종교 > 철학 순으로 점점 발달한 절대정신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나)에서의 1문단은 ‘수렴’ ~ ‘조화’로 이어지는 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두 개의 영역 모두 잃지 않고 완벽하게 합쳐야만이 질적 고양을 이룰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미학에서는 이러한 변증법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직관의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은 정이 소실되어가는 ‘일방적 승리’라고 볼 수 있었다. 직관과 예술로 대표되는 ‘감각적 지각성’이 종합에서 완전히 소거된 것은 헤겔의 미학에서 변증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철학까지 도달하면서 결국 객관성은 소실되고 완전한 주관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변증법적으로 라면, 객관성과 주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학에서의 변증법은 왜 실패한 것일까. 변증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 반, 합'을 찾아야 한다. '정'과 '반'의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합'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나) 글을 통해 예술-종교-철학으로 이어지는 정, 반, 합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 정과 반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합에 해당하는 철학의 사유에 예술의 객관성이 지워졌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지문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철학에 이르면서 완전한 주관성, 내면성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다시 '정'으로 삼고 '반'에 해당하는 무언가와 합치게 된다면 '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지문에서는 다음처럼 나타난 것이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예술이 객관성을 띠었다고 철학의 정립에 반대되는 반정립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예술을 할 때는 사유도 필요하고 감각도 필요해서이다. 만약 예술이 철학보다 하위의 것이었다면 사유만으로 예술은 완벽하게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유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예술적 체험을 기반으로 필자는 헤겔에게 반문하는 것이다. 결국 '재객관화'에 해당하는 또 다른 절대정신을 찾아 철학의 반정립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 결과 어떤 '합'이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지문의 필자는 그 후보를 '예술'로 추측하는 것이었다. 예술보다 철학이 우월할 것이라는 통념에 헤겔은 자신의 이론인 변증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이는 지문의 마지막에서 압축적으로 요약된다.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당연히 변증법이다. 이러한 변증법을 미학에 잘못 적용했음이 (나)의 요지임을 우리는 결론부를 통해 배웠다. 이처럼 도입부에서 강력한 요약이 나오지 않은 지문은 대놓고 결론에 드러나 있다. 그렇기에 다 읽었다고 결론을 날려 읽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되니 주의하자.

(가)와 (나) 글이 공존하는 복합 지문에서 두 글의 연결성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다. (가)는 예술이 지성이 없던 시절의 절대 정신으로 격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나)에서는 철학 이후의 단계로 생각된다. 따라서 예술과 철학 간의 위상이 두 글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문제로 가보자.

4번

(가)와 (나)를 우리는 방금 정리했다. 예술과 철학 간의 위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두 글은 입장차를 보인다. 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선지가 보이지 않는다.

① :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이라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가)는 예술 다음이 철학, (나)는 철학 다음이 예술이라 말한다. (0)

5번

절대정신의 정의를 묻고 있다. 절대정신인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며, 이를 인식하는 형식은 각각 직관-표상-사유였다. 따라서 형태와 상관없이 절대정신의 인식 대상은 언제나 '이념'이다. ㉓은 절대정신의 정의를 혼동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선지였던 것이다.

6번

(가)의 주제는 예술(직관)이 철학(사유)보다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 문제에서는 이 둘의 위상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지 않을까.

㉔는 사유를 통해 직관을 한다. 이는 직관을 사유의 다음 단계로 놓는 (나)의 입장 아닌가. 또한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고차원적 사고가 (가)에 따르면 직관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실 ㉔는 이 지문을 대표하는 선지다. (나)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정반합의 예시를 출제자가 숨겨 놓은 것이다. 사유로 새로운 개념을, 직관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져와 둘을 합친다면, 이는 변증법적으로 질적 고양을 이룬 '합'으로서의 예술이 될 수 있을 거다. 문제와는 상관없는 얘기이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넘어가도 좋다.

7번

(나)는 ㉑을 잘못 적용한 것이 ㉒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㉑과 달리 ㉑은 올바른 수렴적 상향성을 충족한다고 말할 거다. 이를 정확히 반대로 말하는 선지는 ㉑과 달리 ㉒은 일방적 승리나, 중화반응을 보인다고 말할 거다. 그런 선지는 ㉓이다.

8번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지성적 통찰은 사유로 대표되는 철학을 말한다. 철학 → 예술로 승화시켰음은 철학을 정립으로 삼아 예술이라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즉, (나)와 매우 부합하는 상황인 게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던 초기의 작품들의 이유를 지적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하위 조건으로 철학을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문에서 제시했던 헤겔이 체험한 여러 예술 중 하나를 사례로 가져온 것이다. 결국 <보기>의 헤겔의 말에 따르면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예술이 지적 성숙을 바탕으로 달성되는 절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㉒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던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지적 성숙)을 바탕으로 달성된다. (O)

지문의 완벽한 요약이 이 선지였다. 따라서 이를 고르지 못했다면 독해 실패다.

[낭만적인 것으로의 철학적 사유] 2023 LEET

‘낭만’은 예술의 형식, 역사나 장르를 유형학적으로 단계화하는 미학적 맥락에서 등장했다는 건 쉽게 말하자면 분류 기준으로 쓰이던 단어라는 거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 달리 헤겔 정신철학 전체의 핵심을 적확히 드러내는 용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의 과제다. ‘낭만’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토용되는 의미가 있어 오해를 불러오기에 우리는 이제 ‘낭만적인 것’이라는 용어로 옮겨올 것이다. 신기하게도 ‘낭만적인 것’은 첫 줄에 나온 예술의 장르를 단계화한 ‘낭만주의’와는 구별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앞선 내용으로는 추론도 불가하니 우리는 이를 딱박으로 생각해야 한다.

낭만주의는 무한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요소로 가진다. 허나 헤겔은 이성(철학)을 가장 중시했기에 헤겔에게 낭만주의는 지적 미성숙이다. 그러나 헤겔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유에 따른 철학에게도 ‘낭만적’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낭만주의’의 낭만은 헤겔이 사용하는 낭만과 구분되어야 하며, 헤겔이 사용하는 낭만은 우리가 앞서 약속한 대로 ‘낭만적인 것’에 대응될 것이다. 결국 1문단에서 말했던 ‘낭만적인 것’과 ‘낭만’을 구별해야 한다고 반복하고 있을 뿐, 정확한 의미를 말해주지는 않았으므로 우리는 딱박 회수를 위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지문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이라는 용어를 가져온다.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와는 다른 단어라고 한다.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의 상위범주인 정신철학적 범주이다. 그러기 위해서 헤겔의 정신철학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결국 딱박이었던 ‘정신철학의 핵심인 낭만적인 것’을 이해해야 하니 말이다.

헤겔의 정신철학적으로 가장 저급한 단계는 주체가 객체에게 의존적이어서 독립하지 못하는 감각적 지각이다. 반면 가장 고급한 단계로는 외부와는 독립되는 내적인 이성적 사유이며 이를 ‘반성’이라 한다.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재귀적으로 작동하는 지극히 정신 한정적인 단계이다.

심지어 헤겔은 이성을 가장 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했기에 ‘신’이 인격체인 개체가 아니라 세상의 전반적인 원리로서의 ‘이성’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절대자와 상응하는 지적 활동인 이성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신에 가까워지는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헤겔의 주장이다.

‘기독교적인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특정 개체인 신을 만나려하는 원시적인 지성성을 넘어 순수한 내면의 정신성을 성취하는 단계라고 한다. 즉, 신이 세계의 근본적 질서인 ‘이념’이라고 본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인 것은 종교를 넘어서 철학적 사유로서 신과 소통하기 위해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물론 원시적인 토테미즘, 애니미즘을 넘어섰지만 완벽한 내면적 성찰(이성)만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활동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국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것의 차이는 과정이나 목적이나의 차이였다.

이제 ‘낭만적인 것’의 열쇠를 풀어보자. ‘낭만주의’는 감성과 상상력이라는 이성보다 하위의 절대정신을 추구한다. 그러나 낭만주의라는 활동은 경험 세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상을 바탕으로 창출해내는 지적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낭만적인 것’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완전한 ‘낭만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외면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반성’해야 한다. 기독교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을 같다고 보았던 헤겔의 말을 생각해보았을 때 낭만주의는 기독교처럼 낭만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충족한 하위 단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는 여러 paraphrasing을 거쳐 결국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기에 요약이 어렵지 않다. 헤겔의 정신철학이 가장 추구하는 '이성, 순수한 내면적 반성'을 실천함으로써 세계의 근본적 질서인 이념(신)으로 도달하려는 활동이 '낭만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이었다. 이에 반해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어느 정도 반성의 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낭만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외면 세계로부터의 온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게 지문의 전부였다. 이제 문제로 넘어가자.

22번

- ① : '낭만적인 것 = 기독교적인 것'은 성립하지만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명확히 달랐다. (X)
- ② :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것에 속하지만(하급 단계이지만) 동치가 아니다. (O)
- ③ : 둘은 불완전하다고 했다. (X)
- ④ : 낭만주의는 낭만적인 것(기독교적인 것)의 훨씬 하위이다. (X)
- ⑤ : 가장 고급 단계인 개념적 반성으로 수행되며, 하급 단계와 구별된다. (X)

23번

- ㉠ : 그의 정신철학 전체의 핵심 (=낭만적인 것)
→ 인간 지성의 형식은 '신'처럼 순수한 내면적 반성을 통해 최고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가장 부합하는 선지는 ㉡이다.
- ① : 신앙과 예술보다 철학적 사유에서 최고도로 이루어진다. (X)
- ③ : 체험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므로 하위 단계이다. (X)
- ④ : 절대자의 인격화는 원시적이다. 최고의 인식은 이념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X)
- ⑤ : 자유로운 상상력의 작동은 비이성적이기에 하위 단계이다(=낭만주의). (X)

24번

<보기>를 먼저 읽어보자.

헤겔은 회화가 조각, 건축과 구분되어 '낭만적' 예술 장르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보이다시피 역사가 거치면서 확립된 자아가 형상화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처럼 사실주의로 그렸기에 마치 헤겔에게는 하위 단계로 보일 것 같지만 헤겔은 그에 담긴 자아에 대한 고민 즉, 반성을 포착해 네덜란드 장르화를 '낭만적인 것'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내면을 정리하여 외면으로 표출했기에 내면의 사유가 있었다는 거다. 반면 다른 예술은 외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의 사유를 했기에 보다 하급 단계로 볼 수 있다.

- ① : 예술은 철학적 사변을 넘어설 수 없다. 철학적 사유인 이성이 최고 단계이다. (X)
- ② : 인간의 본질을 미시적 현실에서 찾는다는 건 외면으로부터 내면을 형상화하는 거다. (X)
- ③ : 기독교의 교리와 일상의 사실적 묘사는 내면의 반성과는 거리가 있는 외면이다. (X)
- ④ : 정신적 내면성으로부터 회화적 표현이 창출된 것이 회화가 조각, 건축보다 상위였던 이유다. (O)
- ⑤ : 네덜란드 장르화는 네덜란드인의 본질에 대한 내면적 성찰이 외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낭만주의는 이성과 구분되는 상상력이라는 하위의 내면으로부터 그려진 것이기에 네덜란드 장르화보다 헤겔에게는 하위의 것으로 판단되었을 거다.

지문이 어려웠으나 문제들은 모두 이성을 우선순위로 두면 쉬이 풀렸다. 역시 요약이 가장 중요하다.